

지금이 중하니라

본 문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 <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2. <지금>은 ‘휴거 되어 사는 기간’이다. 고로 항상 <휴거>가 ‘기본’이며, ‘핵’이다.
3.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창조 목적을 이뤘다. <휴거>로 인해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온전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4. <휴거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한 것>과 같다. 연애 기간은 끝났다. 이제 <결혼해서 사는 기간>이다.
5. <결혼 후 같이 사는 기간>이 중하다. 이때는 <개인>을 벗어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 <휴거 후 3년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과 같다.

6.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며 차원을 높이고 하나님과 주의 수준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
7. <지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같이 행해야 될 때>다.
8. <결혼기념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휴거된 신부들>도 그러하다. <휴거기념일>만 만나서 같이 먹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즐기며 기뻐 사는 것>이 중요하다.
9. 매일 사랑에 불타서 함께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듯이, 매일 주와 함께 하며 사랑하고 같이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10.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와 같이 살면서 주와 같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밀어 붙이고, 자신을 완전하게 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행해야 될 때다.
11. <지난 40년 동안 역사해 온 것>은 <앞으로 남은 역사>를 위해서다. <지난 40년 동안 뒀던 것>은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12.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40년 동안 역사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뛰어왔다.” 하셨다.

13. <지금>이 중요하다.

14. <지금>은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때이며 더 차원 높여야 될 것을 차원 높여 일으켜 세워야 될 때다.

15. <지금>은 결정할 때다.

16.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하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왜? 결정으로 인해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17. 지금, <지금의 그 주관권의 핵>이 지나간다.

18. 지금, 주가 오셨으니 지금이 중요하다.

19. 지금, 주를 만나니 지금이 중요하다.

20. 지금, 주가 말씀을 하시니 지금이 중요하다.

21. <말씀>은 곧 ‘역사’가 된다.

<전환>

22.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휴거의 말씀>을 중심하고 해야 된다.” 하셨다.

23. <휴거>하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곧, <주>다.

24. <휴거>는 ‘주’ 안에서 일어난다.
25. <사랑>도 ‘주’ 안에서 일어난다. <주>가 와서 ‘사랑의 역사’를 펴기 때문이다.
26. 항상 ‘주’를 빼면 안 된다. <주>를 빼면 혼이 빠진 사람, 정신이 빠진 사람이다.
2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가 없으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28. <주>가 ‘하나님의 몸’이며, ‘성령님의 몸’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땅에 보낸 자,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고로 <휴거>가 중하지만, <주>가 없으면 ‘휴거’도 이를 수가 없다.
29. 성경 말씀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는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고, 구원의 때에는 구원을 베푸니,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다.이 말씀을 <이 시대>로 보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휴거의 날, 결혼의 날, 혼인 잔치의 날>이다.
30. 우리가 볼 때 <혼인 잔치 기간>은 ‘천 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날’이다. <지금>은 이 ‘혼인 잔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이 중하다는 것이다.

31. <2015년 3월 16일>, 휴거를 이루고 <지금>은 ‘같이 사는 기간’이다.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기간’과 같다.
32.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더 차원을 높여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차원이 낮아진다.
33. <결혼>을 하면, 할 일이 많다. 특히 결혼해서 할 일이 있으니, 곧 <아기를 낳고 기르는 일>이다.
34. <휴거>는 ‘결혼한 것’과 같다. 고로 <휴거를 이룬 자들>은 이제는 생명들을 낳아서 빨리 길러야 된다. <신앙의 자녀들,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지런히 인도해 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후대가 튼튼하고, 앞날이 튼튼하다.
35. <신앙의 자녀>를 낳고 생명들을 불같이 살피는 그 사랑이 그리도 크다.
36. 연애 기간이 지나고 결혼 했으면 그다음에 할 일은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는 일이듯, 휴거를 이뤘으면 이제는 ‘생명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37. 지금 이때는 ‘생명들을 낳아 기르는 때’다. 고로 <지금>이 중하다.

38. <주>는 모든 시대 십자가를 다 져 주고 나왔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부활 기간’을 보내면서 몸부림쳐 행함으로 부활됐다. <지금>은 부활 이후 몸이 풀려서 ‘뛰고 달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이 그리도 중요하다.
39. 지금 이때를 위해 <극적인 기간, 10년>을 기다렸다. 선생이 외국에 있던 기간까지 하면, 지금 이때를 위해 <20년>을 기다렸다. <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다.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직접 나타나신 일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신다. 그래서 <지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40. 메시아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 주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보통으로 쳐다보고 끝난다. 이를 성령님께 고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크면 되니, 너는 이들에게 말씀을 퍼부어 주어라.” 하셨다.
41. <깨닫는 것>이 ‘은혜’다.
42. 깨달았어도 ‘깨달음의 강도’가 중요하다.
43. 사람이 <감각>이 둔하면, 운동을 해도 별 볼 것이 없고, 말을 해도 별 들어볼 것이 없다. 그리고 일을 해 봐도 특별히 별 볼 것이 없다.

44. 성공하려면, ‘감각’이 있어야 된다. <반응>이 커야 된다.
45. <메시아에 대한 것>은 충격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
46.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메시아’를 쓰고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47. <메시아>가 나타날 때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교육’을 받듯이 <메시아>는 ‘메시아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온다.
48. 선생은 13세 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을 교육 받았다. 그러고서
마지막에는 다 깨닫고 겁이 나서 더 공부하겠다고 하니, 성자에게
서는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없다. 앞으로는 뛰면서 배우자.
가르쳐 주마.” 하셨다.
49. <하나님에 대한 가치>, <성령님에 대한 가치>, <메시아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사들, 선지자들에 대한 가치>
도 알아야 된다.
50. <메시아>로 인해 ‘그 시대 운명’이 좌우된다. <메시아>가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다 책임지기 때문이다.
51. <한 가지>만 봐도 “메시아가 맞구나.” 한다. <메시아>는 한
가지 뿐 아니라, 수백 가지를 첨단을 달리며 행한다. 어떻게?
<사람>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이 그 보낸 자의 육을 쓰고 행

하시기 때문이다.

52. <사람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편다.

53. <사람의 머리>로는 수십억 사탄, 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간 생명들을 뺏어 올 수가 없다.

54. 하나님과 일체 돼서 ‘하나님적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된다. <메시아>는 이같이 했기에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역사를 폈다. 고로 다 이루고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을 다 시켰으니 이제는 휴거의 날이다. 잔치하는 날이다.” 한다.

55. 올해는 ‘주를 직접 만나는 해’였다.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도 중요했다.

56. <휴거>하면, ‘주’다.

57. <주>로 인해 ‘구원’도 이뤄지고, ‘휴거’도 이뤄지고,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58. <주>로 인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이다.

59. 가령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전류가 흐르는 선>이 있어야 된다. <전구>가 있어도 ‘전류가 흐르는 선’이 없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60. <주>는 ‘문’이다. <지구상에 대표로 세운 자>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구원도, 휴거도 시키신다.

61. <하나님>은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발전소’와 같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전구’가 있어도, ‘전류가 흐르는 선’이 있어도 불이 켜지지 않는다. 고로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지구상의 대표자, 주> - 이렇게 봐야 된다.

62. <주>는 다 깨닫고 나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한 것>도, <재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휴거>에 대한 것도, 그리고 <영>과 <혼>에 대한 것도 깨닫고 다 밝힌다.

63. 하나님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밝히신 인봉을 깨닫고 알아야 새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며 갈 수 있다.

64. <주>가 다른 것이 있으니, 곧 <생각>과 <사상>이 다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

65. 항상 <지금>이 중하다. <지금, 그때>에 운명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66. <지금>은 ‘과거사와 미래사의 운명을 판단하는 시간’이다.

고로 그때마다 판단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지난날의 모든 미련을 해결하게 되고, 앞날이 흰하게 된다.

6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못한 것〉을 ‘현재’에 한다.” 하셨다.

68. 하나님은 ‘과거에 못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다시 돌리신다. 그리함으로 〈현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신다. 고로 〈현재, 지금〉이 중하다.

69. 〈과거에 못한 일들〉을 ‘현재’에서 판단을 잘하고 해야 된다.

70. 〈역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이 중하다. 왜? 〈섭리역사〉에서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하나님도 ‘한 것’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고로 〈핵심지, 섭리역사〉에서 할 일을 해 놓고, 하나님께 반응도 보이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다.

71. 〈지금〉이 왜 중한지 모르면 안 된다.

72. 〈과거 역사에 이루지 못한 것〉을 〈성약역사〉에서 이뤄야 된다. 고로 〈지금〉이 중하다.

73. 하나님은 〈지금, 육신 있는 자들〉로 행하신다. 〈새 시대 성약역사〉를 중심으로 시대를 돌리신다. 고로 〈지금〉이 중하다.

〈전환〉

74. 〈구원받고 휴거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성자도 주도 쫓아다니면서 말씀해 주고, 기다려 준다. 그러고서 시대를 깨닫고, 주를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쫓아다녀야 된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고, 행해야 된다.
75. 지금은 ‘본인이 할 때’다. 본인이 먼저 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
76. 하나님도 주도 쓰시지만, 자기를 써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자기가 쓰여지기 위해 애간장 타며 찾고, 하나님과 주를 쫓아야 된다.
77. 지금은 〈주가 시대 십자가를 지는 때〉도 아니고, 그 후에 〈부활하는 기간〉도 아니고, 이미 살아서 사정없이 뛰고 돌아다니는 때다. 그래서 지금이 중한 때라는 것이다.
78. 〈어릴 때〉 운명이 좌우된다. 어릴 때, 귀한 말씀을 전해 줘서 듣게 해야 된다.
79. 〈말씀〉을 전하면, 〈어린 아이들〉은 맛을 약하게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느끼고, 더 잘 알아듣고 좋아하고, 서운하게 대하면 더 서운하게 느낀다. 고로 무시하지 말고, 사정없이 펴부어서 말씀을 전해 주고 가르쳐야 된다.

80. 어린 자들이 있어야 ‘희망’이다. 어린 자들에게 말씀을 심어 놓아야 후대에 역사가 일어난다.
81. <지금>이 ‘중한 때’인데, 이때 허리끈을 끌러놓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 <지금>은 ‘긴장의 허리끈을 꼭 조여 매고 행해야 될 때’다.
82.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플레이(play), 시작>이다.
83. <시작할 때>가 그리도 중하다.
84. <호각을 불었을 때> 빨리 뛰지 않으면, ‘진 것’이다. <시작할 때, 호각을 불었을 때> 1초라도 다른 생각을 하면 그만 큼 지는 것이다. <플레이, 시작> 했으면, 그때부터는 죽기 살기로 끝날 때까지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
85. <지금>은 ‘시작’ 됐다. <역사>가 시작 됐다.
86. <역사>는 ‘주’다. <주>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주>가 뛰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가 뛰는 이때, 같이 뛰어야 된다.
87. <지금>은 <주>가 와서 직접 통솔하고 있다.
88. <지금>은 <주>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며 외치고 있다.

89. <지금>은 ‘지나온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 이고, ‘미래도 결정되는 시간’ 이다.
90. <지금>은 ‘메시아’ 가 지상에 와 있으니, 정말로 중요한 때다. <메시아>는 한 번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91. <유대 종교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통곡의 벽에서 눈물겹게 울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와서 역사를 펴고 끝냈다.
92.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최고 잘 믿는 민족이었는에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 을 안 믿었다. 성경을 자기 식으로 풀고, 문자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 구름 타고 올 것을 기다리고, 불을 갖고 온다고 하니 불을 갖고 오는 자만 기다렸다.
93.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 메시아>를 택하여 그를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 육신을 쓰고 오신다. 그를 쓰고 ‘불같은 말씀’ 을 전하신다.
94. 성경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타고 온다는 것>을 말한다. <구름>은 더러운 물이 증발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깨끗하다. 고로 메시아가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을 두고 ‘흰 구름’ 으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다. 이것을 모르니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 10억년이 가도 그들이 기다리는 식으로는 안 온다.

95. 기독교인들은 성약역사 1000년이 가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 왜? 모르면 기다리는 것이다.
96. 알면, 아무리 어린 자라도 ‘생명 길’을 알고 따라 간다. 모르면, ‘반대쪽, 사망 길’로 간다.
97. <아는 자>가 ‘신’이다.
98.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곧 ‘인간으로서 신이 된 자’다. <시대>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99. <메시아>는 ‘생각’이 다르고, ‘하는 말’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100. <신랑>이 왔는데 마음 놓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가버리면 마음에 만족이 없다. 고로 <신랑>은 와서 ‘말씀’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고 간다.
101. <말씀>은 ‘생명나무’다. <자기 뇌, 마음>이 ‘선실과’다. 그러니 <주>는 와서 거침없이 말씀을 해 준다.
102. <지금>이 중요하다. 마치 테니스를 칠 때 볼이 자기에게 올 때와 같이 중요하다.
10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중

하다. 왜? <지금> 하기 때문이다.” 하셨다.

104. 항상 <지금>에서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105. <지금이 중요하다> - 항상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실수도 하지 않고, 문제도 안 생기고, 완벽하게 하게 된다.

106.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 중요하고, <노래하는 사람>에게도 ‘지금’ 이 중요하다. 모두에게도 <지금>이 중요하다.

107. <지금>은 ‘주’ 와 같이 뛰어야 될 때다.